

▶ **‘전북 나우아트페스티벌’**
8월 24일부터 5일간 전주 곳곳에



작가들의 작품 전시 · 판매 동시에

도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시·판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미술축제가 열린다.

(사)한국미술협회전북지회(회장 강신동)가 주최하고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 집행위원회와 주관하는 ‘2017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이 오는 8월 24~28일 전북예술회관, 교동아트미술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나는 예술가다. 전북 GOOD 미술시장’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JAF Flash 27人, JAF Youth 9, JAF 작고작가 특별전, JAF 미술놀이터, 작가 오픈 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미술경제 및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은 물론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둔다.

메인행사는 20~30대 젊은 작가들의 예술시장 진입을 확대하고자 ‘JAF Youth 9 전’을 비롯해 누구나 부담 없이 작품을 구

매인행사, ‘JAF Youth 9’ · ‘반앤반 할인전’ 등 구성
부대행사로 ‘작가 오픈스튜디오’ 올해 첫 선
미술놀이터 · 아트 박스서 미술체험 프로그램 진행
개막식은 8월 25일 오후 5시 전북예술회관 야외서

매할 수 있도록 미술품 가격을 책정해 선보이는 ‘반앤반 할인전’, 지역에서 활동하다 작고한 작가들을 재조명하는 ‘전북 작고작가 특별전(조운철 화백)’ 등으로 구성했다.

부대행사로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작가 오픈스튜디오’는 작가의 작업실 공간을 연출, 작가가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공개한다.

공간영상 및 설치 작품으로 채워질 이 공간은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미술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 도내 작가와 미술관람에 대한 대중의 친밀감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 외에도 JAF 미술놀이터, Art Box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우아트페스티벌의 개막식은 8월 25



일 오후 5시 전북예술회관 야외에서 행위예술가의 퍼포먼스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강신동 회장은 “공간의 제약과 한계로 인하여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쉽지만, 지역 미술문화의 발전과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축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전시 ◀◀



클래식 · 뮤지컬 · 오페라의 ‘3중주’

오늘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전당 첫 기획공연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문화의전당 6월 첫 번째 기획 공연으로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가 만나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음악들로 구성된 ‘樂! 樂!! 樂!!! 콘서트’를 8월 8일 오후 7시 30분에 선보인다.

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엘리체앙상블의 ‘락! 락!! 락!!! 콘서트’는 공연의 재미처럼 다채로운 즐거움의 락(樂)이 함께 한다.

서울엘리체심포니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김시형)가 들려주는 웅장한 락(樂)은 영화 ‘시네마 천국’ 배경음악과 ‘캐리비안의 해적’ 등의 무대를 선사하고, 노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락(樂)은 테너 이종한씨의 뮤지컬 ‘지금 이 순간(지킬 & 하이드 中)’, 소프라노 박미영씨가 ‘You Raise me up’ 등을 연주한다.

또한 테너 임준태, 이정환씨와 바리톤 최윤식씨의 합창 락(樂)에서는 우정의 노래(Stein Song)로 신나는 무대를 만들고, 소프라노와 테너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락(樂)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中’ 축배의 노래 등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서울엘리체앙상블(단장 임준태)은 ‘즐거운 음악의 향유’라는 가치 아래 2003년 창단돼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 무대를 개최해 서울과 여러 지역을 오가며 많은 청중들에게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음악의 즐거움의 락(樂)을 선사하고 있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성인 3천원 학생 1500원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립국악단, 10월까지 ‘달하 노피곰 도다샤’

정읍시립국악단이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일 보름에 상설공연을 갖는다.

공연작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을 담고 있는 ‘백제 가요 정읍사’ 여인을 주제로 한 ‘달하 노피곰 도다샤’이다. 시립국악단(장기석 국악단장)을 주축으로, 시립정읍시립국악원 연수생들이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또 지역상품 애용하기 일환으로 ‘올빼미 보부상 체험’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여러 장르의 초청 출연자도 함께한다.

국악단의 상설 공연은 정읍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정읍사’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정읍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첫 공연은 오는 9일 저녁 7시30분 정읍사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가요 ‘정읍사’를 작곡하고 노래한, 작곡가 이호삼씨와 가수 문희옥씨가 출연한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전수자인 심길섭씨가 동료들과 함께 출연하여 팔목춤과 사지춤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공연 당일 저녁 6시 30분부터는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올빼미보부상단(기획자 김석환)이 특색 있는 22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볼품도 판매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나귀 꽃마차 포토존’도 운영될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상설공연이 정읍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백제가요 정읍사의 공간 정읍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오늘 상영작 공개

‘델타 보이즈’ 등 2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생생한 매력에 돋보이는 ‘델타 보이즈’와 길고양이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이끌며 사람과 길고양이의 행복한 공존에 대해 질문하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8일 개봉·상영한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대상 및 CGV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 수상작 ‘델타 보이즈’는 밀바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네 남자가 모여 남성 4중창 대회 참가를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고봉수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으로 주어진 대사 없이 상황만을 제시하는 독특한 촬영 방식으로 제작됐다. 영화는 배우들의 순발력에 의지한 에드리트로 진행되며 도박에 가까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캐릭터들이 생생함이 잘 살아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을 포함하여 제21회 인도포럼 올해의 관객상, 제4회 무주 산골영화제 건지상&전북 영화비평 포럼상 등을 수상하며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길 위에서 행복을 꿈꾸는 한국 길고양이가 이웃나라로 직접 여행을 떠난다는 독특한 콘셉트의 작품이다. /정해은 기자



CNN이 선정한 세계 6대 고양이 스팟 중 하나인 일본의 섬 아이노시마와 ‘고양이 마을’이라 불리는 대만의 허우통을 배경으로 한국·일본·대만의 길고양이가 등장한다.

작품은 길고양이의 시점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동시에 세 나라를 비교하며 길고양이의 현주소를 담아낸다. 관객들에게 우리도 길고양이들과 함께 길 위에서 공존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 참조 /정해은 기자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 결국 부서져 소멸한다’

양규준 개인전 ‘바람’, 도림미술관 서울관서

양규준의 개인전 ‘바람(Wind)’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양 작가는 작품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했다고 한다.

그는 ‘영원할 것만 같은 많은 것들이 부서져 소멸 한다’며 ‘나의 그림 그리기는 일종의 정말 부서지기 쉬운 우리 존재들의 몸짓과 내 주변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징후를 헤아리는 일로부터 시작 된다’고 전했다.

작가는 인물이나 나무·과석 등의 자연물을 캘리그래피로 형상화하고, 육각형의 기하학적 요소를 더하여 전통과 현대·동양과 서양·부드러움과 딱딱함·음과 양

으로 대변되는 작가 내면의 이중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양 작가는 “삼원색의 혼합물인 검정색은 모든 색을 흡수하는 포용력을 갖는다. 칠혹 같은 어둠속에서 이따금씩 반짝이는 여타의 색들은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온 여명과 같다”며 “이는 삶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들· 희망 그리고 꿈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다.

작가는 순창 출생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중앙대 미술학부 및 대학원을 거쳐, 뉴질랜드 화이트클리프 미술대학원, 오클랜드 미술대학원 실기과정을 졸업했다.

화이트스페이스 갤러리, 노스아트 갤러리, 백송갤러리 등을 비롯하여 16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중앙대 미술학부, 신화예고에 출강 중이다. /정해은 기자



희망의 공부방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나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하기를
전북은행이 응원합니다

전북은행 지역사랑 스토리 # 01